

[포EP-07] 프랑스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 천상열차분야지도

안상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우주천문연구센터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들은 주로 왕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들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극히 일부를 약탈해 가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각하였다. 이때 약탈되어 프랑스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도서들 중 일부가 2011년에 임대 형식을 빌어 반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탈 이전에 외규장각에는 어떤 도서가 소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외규장각 형지안을 분석하여 외규장각에는 어떤 천문학 관련 도서가 소장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1631년 정두원이한국사최초로망원경을전래할때함께가져온서양천문학지식이담긴서적들의존재가확인되며, 숙종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초기 탁본이 프랑스 국가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천문학 관련 도서들의 의의와 반환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려 한다.

[포EP-08] 제4회 East Asia Young Astronomers Meeting 개최결과 보고 및 한국 젊은 천문우주과학자들의 모임 현황

허현오¹, 이인덕², 조영수³, 강미주⁴, 김미량⁴, 신윤경⁵, 이영대⁶, 임범두¹, 임여명³, 전이슬⁷, 정의정⁴

¹세종대학교, ²National Central University, Taiwan,

³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⁴한국천문연구원, ⁵연세대학교, ⁶충남대학교, ⁷서울대학교

한국 젊은 천문우주과학자들의 모임 (Korea Young Astronomers Meeting, 이하 본 모임)은 2011년 2월 13일부터 5박6일간 제주도에서 ‘The 4th East Asia Young Astronomers Meeting’ (이하 EAYAM2011)을 개최하였다. EAYAM은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4개국의 젊은 천문우주과학자들의 교류와 연구 증진을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모임으로, 2003년 대만, 2006년 일본, 2008년 중국에 이어 4회째를 맞이하였다. EAYAM2011에는 한국 36명, 대만 19명, 일본 14, 중국 23명, 태국 1명 등 총 93명이 참여하여 구두발표 (71편) 및 포스터 발표(23편)를 진행하였다. 초청강연은 천문연구원의 김종수 박사, ISAS/JAXA의 Munetaka Ueno 교수 (일본), 상하이 천문대의 Cheng Li 교수 (중국), ASIAA의 Jeremy Kim 교수 (대만) 등 총 4편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발표 외에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토의를 할 수 있었으며, 셋째 날 오후에는 다 함께 성산일출봉을 방문하여 제주도의 자연 경관을 둘러보며 친분을 쌓았다. 차기 EAYAM은 4개국의 순환개최 방식에 따라 2014년경 대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2010년 8월 26일부터 2박3일간 일본에서 개최된 제 4회 JKYAM (Japan-Korea Young Astronomers Meeting)에 18명이 참가하였고, 차기 KJYAM (Korea-Japan Young Astronomers Meeting)은 한국에서 2012년 2월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8월 5일-6일에는 ‘한국 젊은 천문우주과학자들의 모임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1년간의 활동을 정리 하고 회칙 초안의 세부 조항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본 모임의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였다.